

○ 진정한 의미의 인간으로!

조광호 <<< 서울장신대학교 교수 / 신약학

1. 건강 vs 병

얼마 전까지 모든 영역에 유행처럼 번진 ‘웰빙’ 열풍이나, 현재 더욱 각광 받고 있는 무공해, 친환경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도 따지고 보면 건강하게 살려는 사람들의 소박한 마음에서 출발된 것이다.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윤택해진 결과, 사람들이 먹고 사는 ‘생존’이 아니라 ‘삶의 질’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따라서 건강에 관한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려는 의지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 하나이다. 인지가 발달하고 주변 사물에 대한 경험과 축적되면서, 인류는 의학적인 지식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갖게 되었다. 이미 주전 3천 년 경 이집트의 의료술은 일차 전성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경험과 이론적 기초 하에서 의술을 탄탄하게 발전시킨 민족을 꼽으라면, 그리스인들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히포크라테스 선서(주전 5세기 중반).

고대인들은 병의 원인을 단순히 상처나 부상에 의해서, 또는 육체가 허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병은 육체적인 현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외적인 세력(신, 귀신, 주술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들—저주, 죄, 잘못된)의 공격을 받아 발생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낫기 위해서는 귀신을 내쫓거나 여러 주술적인 행위들(악령 퇴치 수단으로써의 약재 사용, 기도·제사 등을 통한 신적인 존재와 화해 시도)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합리적인 차원의 의학적 치료 방법을 불신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치유는 병과 마찬가지로 초월적인 존재나 힘이 간섭한 결과라고 그들은 여겼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나 치유해 주는 신을 각별히 예우하며 모셨다—그리스: 아폴론, 아스클레피오스, 이집트: 임호텝, 앗시리아—바벨론: 탐무즈. 사람들은 이들 신의 이름으로 신전을 짓고 그곳을 치유를 위한 안식의 장소로 사용하였다—예: 코스 섬의 아스클레피온 신전.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낫는 것이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출 15:26,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참고. 욥 5:18).

2. ‘치유’ 용어와 예수님의 치유

‘치유하다’는 뜻을 가진 대표적인 단어는 *θεραπεύω*이다. 이 단어는 일반 헬라세계에서 ‘섬기다’는 뜻으로 이해되었다. ‘제의적으로 신을 섬기다’는 뜻은 여기서 나온 것이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의 동사 *θεραπεύεται* (“섬김을 받으시는”)는 이러한 용례로 사용되었다. 그 외에 *θεραπεύω*는 ‘돌보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의사의 돌보는 행위로 말미암아 환자가 낫게 되므로, 여기서 ‘치유하다’는 뜻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신약에서 *θεραπεύω*는 총 43회 사용되었다—마태복음 16회, 누가복음 14회, 마가복음 5회, 요한복음 1회, 사도행전 5회, 요한계시록 2회. 이 통계를 통해 우리는 *θεραπεύω*가 복음서 기자들의 글에(사도행전 포함) 대

부분 나타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신약에서는 오로지 ‘고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행 17:25 제외). 즉, *θεραπεύω*에서 파생된 *θεραπεία*(눅 12:42), 또는 *θεραπών*(히 3:5) 등의 단어는 ‘종’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동사 *θεραπεύω*에는 헬라 세계에서 사용된 ‘섬기다’는 뜻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θεραπεύω 외에 ‘치유하다’ 뜻을 가진 동사로 *ἰάομαι*를 들 수 있다. 이 단어는 전통적인 의학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ἰάομαι*는 신약에서 26회 사용된다—복음서에 19회(마 4회, 막 1회, 눅 11회, 요 3회)와 사도행전에 4회 등장한다. 그 외에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각 한 번씩 사용되고 있다. *ἰασις*(‘나음’)는 3회(눅 1회, 행 2회), *ἰατρος*(‘의원’)는 7회(마 1회, 막 2회, 눅 3회, 골 1회) 나온다. *ἴαμα*(‘병 고침’)는 고린도전서 12장에 3회 사용된다. 이상의 통계는 우리에게, ‘치유’라는 단어 군(*ια-*)은 주로 복음서에서 많이 나오고 있음을 알려 준다. 특별히 누가는 이 단어군을 선호한다—총 39회 중 21회. 하지만 *ἰάομαι*와 *θεραπεύω* 간의 의미 차이는 거의 없다.

복음서 중 제일 먼저 쓰인 마가복음 첫 장에 따르면, 예수는 가버나움에서 축사행위를 통해 귀신들린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키셨다(21절 이하). 이것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첫 이적 행위이다. 이어 병든 시몬의 장모를 예수께서 고치고(30절 이하), 나병환자를 낫게 하는(40절 이하) 기사가 연이어 나온다. 마가복음은 이처럼 예수님의 치유 행위를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침’(5-7장)과 ‘이적’(8-9장)으로 양분되는데, 이 부분은 마치 괄호를 열고 닫는 것처럼 전체 내용을 요약한 유사한 내용의 두 절로(마 4:23; 9:35 “가르치시며 … 고치시니”) 시작되고 끝맺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치유’는 ‘가르침’과 함께 예수께서 하신 사역의 양대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누가복음 6장 18절에서도 관찰된다.

3. 치유의 전제 조건

마가복음 6장 5-6절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서 어떤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곳 사람들은 예수의 성장과정을 지켜보고 목격했다.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데 장애물 역할을 했다. 예수는 답답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치유 받으려는 자 또는 낫기를 간청하는 자가 예수를 주님으로 분명히 고백해야 한다. 믿음이 선행되어야 치유의 역사(役事)가 일어나는 것이다(참고. 마 8:8 이하; 9:27 이하; 15:21 이하; 막 5:34).

의사를 신뢰하지 않는 환자의 병은 나을 수 없다. 믿을 때에, 치유의 기적이 발생한다. 소경 바디매오가 다시 보게 된 것도 그의 믿음 때문이다(막 10:52). 예수께서는 믿으려는 마음 없이, 표적이나 이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셨다(마 12:38 이하; 막 8:11-12; 막 15:32).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터전이다. 믿기 위해서는 투신(投身)의 자세가 필요하다(귀속[歸屬]의 정신, appropriation). 일정 거리를 두고 그것이 진리인지 관찰하고 검토하는 태도는 신앙과 관련 없는 것이다. 스스로 믿는 믿음을 우선 진리라고 인정하고, 결단하여 전 삶을 걸고 그것이 정말로 ‘참’임을 하나씩 확인해 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적 태도이다.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credo ut intelligam ‘알기 위해서 믿는다’)이란 말처럼, 믿음은 점점 더 많이 깨달아 알아가는 일종의 과정이다. 마가복음 9장 24절의 귀신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믿는다고 선언한 뒤(진리에 투신-“내가 만나이다”) 자신의 ‘믿음 없음’(無知)을 고백하며(“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께 도와 달라고 간청한다. 일단 믿는다고 했지만, 그 믿음은 체험과 인식을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수준(이해된 믿음)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그렇기에 자신의 불신

양을 도와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다.¹⁾

제자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낮게 하실 수 있다는 아버지의 믿음 덕분에 아이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었다(마 17:18). 비록 인간적 차원의 희망은 모두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는 결코 다함이 없다고 굳게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치유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치유되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은 다만 기적을 받아들이는 준비된 마음의 상태이다. 믿음 자체가 기적을 일으키는 힘은 아닌 것이다.

불쌍히 여기시는(σπλαγγνίζομαι) 예수님의 마음도 치유의 동인(動因)으로 작용한다(마 14:14). 비록 ‘고치다’라는 단어는 없지만, 예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눅 7:13),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20:34),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마 1:41-42), 귀신들린 아들을 치유한(마 9:14 이하, 참고 22절) 까닭은, 주님의 이 ‘불쌍히 여기심’ 때문이다.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다. 특히 시편과 이사야(40장 이하)에서 하나님은 멸시받고 천히 여김을 받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 주는 존재로 소개된다. 이러한 성품을 그리스도 예수도 이어받으셨다. 그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인간을 회복시킨다.

병들고 귀신에 사로잡힌 인간을 다시 온전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은 인간을 향한 자신의 한없는 연민과 애정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다. 맹인 바디매오/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ἐλέησον)라는 간청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신다(마 10:47-48; 9:27, -그 외에: 마 15:22의 가나안 여인의 외침, 17:15의 한 사람의 외침). 예수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다-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ἐλέησει) 네 친숙에게 고하라(막 5:19).”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인간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애정과 사랑을 쏟으신 예수님의 마음과 메시아로서

1) 조광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서울: 비블리카 아카데미아, 2008, 44-45.

의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들린 자, 병든 자들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치유되었다.

4. 축사(逐邪) - 치유의 일면

예수께서는 인간을 육체와 정신의 상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 완전체로 보셨다. 예수는 인간을 온전하게 하고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오셨다(요 3:16; 10:10). 그분은 병을 죄의 결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린 형벌로 이해한(출 15:26) 구약과 다른 견해를 취하셨다(요 9:2 이하). 물론 병과 죄 사이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으셨다(요 5:13-14; 참고, 약 5:16). 예수는 무엇보다도 질병을, 종종 인격 내부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악과 사탄의 활동 결과로 보았다(눅 13:16). 귀신은 사람을 영적인 혼란에 빠뜨리며 잠재의식 내에 갈등을 유발시킨다. 질병 배후에 있는 귀신을 물리침으로써, 병든 자가 건강해지는 현상은 따라서 하나님 주권의 승리로 이해될 수 있다.

사람 안에 거하는 귀신은 예수의 영적 권능으로 축출된다. 축사(逐邪)는 '선포'와 '치유'와 함께 주요한 예수님의 사역이다(마 8:16; 막 1:34; 눅 13:32). 하지만 다시 정상을 되찾게 한다는 점에서, '축사'도 '치유'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막 3:10-11; 눅 4:40-41). 귀신을 축출함으로써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이 들어난다. 귀신 축출은 예수 혼자만 하시는 작업은 아니다. 그는 제자들에게도 이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마 19:1, 8; 막 3:15).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따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다(참고, 마 17:19-20; 막 9:38, 참고 유대인들도 귀신을 쫓아냄-마 12:27).

당시에 귀신을 내쫓는 복잡한 주문이나 의식 등이 존재했다. 예수는 단순히 말씀으로 명함으로써 귀신을 쫓아낸다(마 8:16). 마가복음 9장 29

절에 따르면 기도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났다. 여타의 귀신추방 행위와 예수의 그것은 이런 점에서 현격하게 구별된다. 예수께서 귀신을 축출하실 때,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셨는지’ 사람들은 묻는다. 예수의 능력이 어디서 유래되었는지는 ‘바알세불 논쟁’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막 3:22-30 병행구). 논쟁자들의 주장과 달리 예수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축사 사역을 행하셨다(눅 11:20의 “하나님의 손”, 마 12:28의 “하나님의 성령”). 귀신 축출을 통해 예수가 종말론적인 지배자임이 분명히 들어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예수의 제자들과(막 16:17) 다른 이들도(막 9:38; 눅 9:49)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쳤다. 초대교회도 병을 고치고(행 3:1 이하; 5:12) 축사의 능력을(행 5:16; 8:7) 행했다. 제자들의 치유 행위는 부활·승천한 주님이 현재 공동체 내에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일종의 표시이다.

5. 치유의 의의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신(마 4:24; 12:15; 14:14; 15:30 등) 목적은, 단순히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려는 데 있지 않고, 치유하시는 메시아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리는 데 있다(마 8:16-17 -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께 온 자는 누구나 치유된다(마 4:24; 막 1:34; 3:10 등).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떠올리게 된다(“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에 따르면, 예수는 도움을 바랄 곳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다가가시는 분(마 8:7; 19:2), 즉 ‘하나님의 종’ 이시다.

예수의 치유 행위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이다(눅 9:2, 11, 42; 행 10:38; 사 35:3-6; 61:1-2). 예수는 종말론적 구원의 때를 도래케

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이다. 예수는 해방과 구원의 행동을 통해, 예언자의 말씀이나 성경에 예시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다. 저는 자, 맹인, 귀먹은 자들의(막 7:37; 8:23)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한다’는 약속이(사 35:4 이하) 성취된다. 건강하게 된다는 것은 단순한 회복을 뜻하지 않고, 총체적인 치유를 의미하며 도래하는 구원의 때에 대한 일종의 표징이다.

당시의 일반적인 경향과 달리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를 치유 이적자로 신격화하지 않는다. 그들은 예수께서 일으키신 기적 자체에 관심을 집중하지 않는다. 병을 고친 사건을 통해 예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치유를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마 15:31). 예수의 병 고침과 축사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도래한다(눅 11:20; 행 10:38). 예수께 내재된 힘과 능력이 병을 고친다(막 5:30 이하; 눅 6:19). 이 능력은 성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6. 회복

과학 지식이나 물리적 인과관계에 익숙한 현대인들이 볼 때, 치유의 기적은 이해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온전히 치료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치유는 단순한 심리적인 차원의 변화가 아니다. 치유와 관련해서 성경은 *ύγιής*(‘나은’, ‘고침’, ‘건전한’), *ύγιαίνω*(‘났다’) 등의 단어를 사용한다. 예수의 권능의 말씀으로 사람은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회복되었다(마 12:13; 요 5:4, 6; 7:23). 예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다. 그들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사죄의 은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오신 것이다(눅 5:31-32). 탕자의 비유에서(눅 15:27) 둘째 아들에게 사용된 *ύγιαίνοντα*(“건강한”)은 외적인 건강만을 뜻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이기 때문이다(24절).

집을 나갔으나 다시 돌아왔기에, 둘째는 ‘아들’이라는 원래 자리로 복권되었다. 탕자는 다시 건강해졌다. 자유와 구원을 선사하는 예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온전히 회복되어 치유 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인 지방의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뿔다’는 의미로 “군대(레기온)”라고 밝힌다. 로마군 1개 군단(레기온)은 육천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사람은 많은 귀신들에 의해 사로잡혀 고통을 받았으며, 요즘 말로 하면 다중인격 또는 정신분열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로 인해 혼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병세가 중증이었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격리시켰다. 예수께서는 그 귀신들린 자의 곤궁함을 간과하지 않으셨다. 예수는 그를 고쳐 주시면서,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고향으로 가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라고 명하셨다 (19절).

병에 걸리거나 귀신들린 사람은 죄인으로 취급받아 따돌림을 당하고 버림을 받는다. 그들의 삶은 비인간화되고, 폐쇄해진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죄인이라는 자괴감 그리고 심한 소외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예언자가 노래한 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 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으로(사 42:3) 오셨다. 그는 아무 조건이나 차별 없이 사람들의 질병이나, 내면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고쳐 주셨다. 건강하게 회복된 사람은, 거듭난 새로운 존재로(요 3),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소중한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 (자존감 회복).

귀신들린 자는 치유를 받은 후, 데기볼리 지역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였다. 그리스도에 의해 치유된 자는 세상적인 논리나 가치관에서 벗어나, 주님을 따라(막 10:45) 남을 섬기는 섬김의 삶을 산다(마 20:26). 그리고 복음을 증거한다. 예수를 만날 때, 심신이 건강한 ‘나’가 올바르게 회복된다. 내가 소중한 만큼 이웃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아(“네 이

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 19:18), 더 이상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는다. 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인간(人間)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그의 치유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탄이 지배하던 인간의 과거의 역사는 종결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온전히 보고 알게 되는(고전 13:12) 그날을(“장차 … 나타날 영광” 롬 8:18) 소망하며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된다.

:: 조광호 건국대학교(B.A.)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를 나와 독일 마인츠(Mainz) 대학, 함부르크(Hamburg) 대학을 거쳐 빌레벨트 베델신학대학(Ki. Ho. Behel, Dr.theol.)에서 공부했다. 현재 서울장신대학교 신약학 교수로 있다.

●● 설교를 위한 성서연구 · 구약

잃어버린 사자를 찾아서

- 창세기 12장 10-20절

이한영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 / 구약학

●● 설교를 위한 성서연구 · 신약

배부르리라!

- 요한복음 6장 1-15절

문병구 <<<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 신약학